



온라인 식품거래액
47조360억원
고객맞춤으로 진화
L1



Life

브릿지바이오
‘BBT-877’
임상 난항
L2



YG의 CAR TALK 카톡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KG모빌리티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 토레스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고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모델이다.

2022년 출시 당시 기아의 대표 중형 SUV 쏘렌토의 판매량을 추격하며 국내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국내 하이브리드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모빌리티(이하 KGM)의 내수 시장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시승을 위해 만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지만 내적으로는 부드러운 반전 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KGM이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연비 효율성과 완벽한 주행 밸런스를 확보했다.

시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KG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을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까지 왕복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고속도로와 근교 국도의 와인딩 코스를 주행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첫 인상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해 정통 SUV답게 강인한 느낌을 준다. 후면에는 스포어타이어를 형상화한 육각형의 장식이 더해져 정통 SUV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반면 길모습과 달리 도로위에서는 하이브리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KGM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노면 소음과 진동을 차단했으며, 엔진



KGM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 실내.

/KGM

KGM 첫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 흡음형 타이어로 소음·진동 차단 경쟁모델 대비 대용량 배터리 적용 보조금 적용 3100만원대 구입 가능

룸과 엔진커버, 휠하우스 등에 흡차음재를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연료 효율성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BEV)의 중간인 하이브리드차(HEV)로 분류되지만 이날 실제 주행해 보니 전기차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속은 물론 시속 80km 이상 고속 주행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내 하이브리드차 중 가장 큰 배터리(1.83kWh)와 모터(130kWh)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KGM모빌리티는 연비 측정 방식인 cvs75 모드로 도심을 주행하면 94%는 전기 모드로 주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 주행 연비는 공인 복합연비(15.7km/L)를 가볍게 넘어선 20.4km/L를 기록했다. 토요타 SUV 라브4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고객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편의 사양을 대폭 개선

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야간 통합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을 적용해 각종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내비게이션 맵 클러스터 듀얼맵 확장 기능 추가, 2열 히팅시트 제어 메뉴 추가 등 운전자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및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을 비롯해 긴급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안전 거리 경고(SDW), 차선 이탈 경고(LDW) 등 최첨단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차선유지보조 기능을 설정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차선 흐름에 맞춰 핸들이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매끄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개소세(3.5%)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T5 3140만원, T7 3635만원이다. 경쟁 차량들의 가격이 40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세는 ‘하이브리드’… 국산·수입차 신차 잇따라 출격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라인업 확대
기아, 내년 셀토스 하이브리드 출시
푸조, 전기모터 단독주행 시스템 적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시장 대응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부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는 물론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도 잇따라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실적 판매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4월 고객 인도를 위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적용했다. 여기에 중형 세단인 아반떼로 연식변경을 거치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했다.

기아는 쏘렌토와 카니발 등 현행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고 대기기간만 무려 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내년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며 분위기

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KGM모빌리티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모빌리티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중국 비야디(BYD)의 기술을 적용했다. 뛰어난 연료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판매 열기를 올해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블랙 에디션을 출시하고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이벤트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최근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했다. 신형 푸조 308은 스텔란티스 그룹의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스 측 설명이다. 푸조는 올 하반기 푸조 308 SUV 등도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북한 U-17 아시안컵 4강행…결승 ‘남북전’ 성사되나 /사진 뉴시스
▲이정후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흐뭇…“한국 야구 자랑 될 것”

▲‘발롱도르’ 모드리치, 엄지성 뛰는 스완지 공동 구단주 됐다
▲부상 결장한 손흥민, 선발 떨어진 황희찬…EP L 코리안리거 입지 ‘흔들’

▲바이에른 뮌헨 전설, 김민재 공개 비판…“이해할 수 없는 수비”
▲백승호의 버밍엄, EFL 트로피 우승 실패…2관왕 도전 물거품